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춘추경전통해논례〉 탐론

송혜여(대만 금문대학 어문과인문창의응용연구소)

1. 서론

우에노 겐치(上野賢知)의 《일본 좌전 연구 저술 연표》 상권 후반 〈좌전 연구 저술 연표〉에 수록된 내용에 따르면, 고의파 학자 이토 진사이 이전에 볼 수 있는 《좌전》 연구는 두 방향을 포함한다. (1) 복진(服虔)의 《해의(解詁)》, 두예(杜預)의 《집해(集解)》를 근거로 강론하고 전습하며 발휘한 것 외에, 기타 대부분은 《좌전》 전해를 해석하는 저작으로, 《좌전초》, 《춘추경전초》, 《춘추좌씨전필기》, 《좌전서고》 또는 야마가 소코(山鹿素行, 1622-1685)의 《좌전철》 등의 책이 있다. (2) 서기 1241년 호안국(胡安國, 1074-1138)의 《춘추전》이 전래된 후에는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 및 기타 학자들이 《호전》에 훈점을 찍거나, 《춘추호씨전사고》나 《필기춘추호씨전》과 같은 체계를 이루지 못한 저작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모두 중국 《좌전》 권위 주해를 따른 것이었다. 이토 진사이가 《춘추경전통해》를 저술하면서 고의(古義)를 취하여 선왕의 도를 밝히자고 제창하면서 비로소 새로운 창조가 있었다. 이토 진사이의 학문은 새로운 학술 사조의 선양과 개척으로서, 《논어》《맹자》에 전념하며 송유(宋儒)를 넘어 공맹 본경의 뜻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일본에는 진사이의 《춘추》학을 전문으로 논한 두 편의 논문이 있다: 미야케 마사히코(三宅正彦) 〈이토 진사이의 경서 비판 - "삼서고의"에서 "춘추경전통해"로〉, 쓰치다 겐지로(土田健次郎) 〈이토 진사이의 《춘추》관〉. 전편은 이토 진사이 경서 비판 중의 주요 개념을 논술하며, 이토 진사이가 《논어》《맹자》《중용》 세 부에 "공맹의 혈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며, 방법상으로는 "이자해경(以子解經)" "이사해경(以史解經)"을 극력 배제하고 "이경해경(以經解經)"을 시도하는 동시에 "이경해자(以經解子)" "이경해사(以經解史)"를 추구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매우 흥미로운 설법을 제시하여, 진사이의 혈맥설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지어 새로운 혈맥을 창조하여 관심 초점을

《삼서고의》에서 《춘추》 해석으로 이행시켰다고 한다.

이토 진사이는 주로 한유(韓愈)의 〈원도(原道)〉에 근거하여 《시》《서》《역》《춘추》를 논하면서 이를 "사경(四經)"으로 보았다. "사경"은 "삼서(三書)"에 버금가는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이로써 "삼서사경"이 주자의 "사서오경"설을 대체하게 되었다. "사경" 중에서 진사이가 가장 중시한 것은 《춘추》였다. 주로 《맹자》 중의 《춘추》설을 통해서인데, "세도(世道)가 쇠미하고 사설(邪說)과 폭행이 자행되었다.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가 있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시해하는 자가 있었다. 공자가 우려하여 《춘추》를 지었다. 춘추는 천자의 일이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나를 아는 자는 오직 춘추일 것이요, 나를 죄줄 자도 오직 춘추일 것이다'"(《맹자》 등문공 상편 제9장)라고 했다. 이로부터 "공맹의 혈맥"을 추구한 진사이는 《논어》《맹자》를 기반으로 하여 《춘추》로 진입했다. 미야케 마사히코는 이토 진사이의 말을 인용한다: "《춘추》를 아는 자는 《맹자》만한 자가 없다. 그런데 오직 《좌씨전》만이 《맹자》의 뜻과 서로 합치한다. 그러므로 《춘추》를 읽는 자는 응당 《맹자》의 말을 바른 것으로 삼고, 좌씨의 설로 참고해야 한다"(《어맹자의》〈임본〉 하 〈춘추〉 제2조). 그리고 이토 진사이가 좌씨를 춘추시대 인물로 추정하여 전국시대의 맹자보다 앞선다고 본 것을 지적한다. 미야케 마사히코는 혈맥 이론으로 볼 때, 이토 진사이가 말한 "오직 《좌씨전》만이 《맹자》의 뜻과 서로 합치한다"는 것이 《좌씨전》이 《맹자》의 뜻을 빌어 《춘추》를 해석한다는 말이 아니라, 《좌씨전》의 사상 태도가 "공맹의 혈맥"과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설을 깊이 살펴보면, 미야케 마사히코가 이토 진사이설에 대한 판정에는 그의 《좌전》에 대한 견해와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좌씨전》은 후한 이래로 지위가 점차 상승했다. 당 영휘 4년(653), 칙명으로 편정된 《오경정의》 중에 《좌씨전》이 선록되면서, 이때부터 《좌씨전》은 "삼전"의 우두머리로 여겨졌다. 그러나 송학, 특히 주자학에서 《좌씨전》은 작자 문제와 내용 문제 두 방면에서 모두 강렬한 비판을 받았다. 《좌씨전》의 작자에 관해서, 한당 훈고학에서는 통상 《논어·공야장》편 "교언영색" 장에 나오는 좌구명(左丘明)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주자는 "좌구명은 좌가 그의 성이다. 《좌전》은 본래 좌씨 성을 가진 사람이 지은 것이다. 또한 진나라가 비로소 납제를 시작했는데, 이른바 '우불납(虞不臘)'의 말이 분명히 진나라 때의 문자이다"(《주자어류》 권83, 하손록)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주자

는 《좌씨전》의 작자가 좌구명이 아니라 전국시대의 좌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 추정했다. 이 설에 따르면 《좌씨전》의 작자는 자연히 맹자 이후의 인물이 된다. ... 《좌씨전》의 내용에 관해서는, 고문이기 때문에 금문 《공양전》 《곡량전》을 가학으로 삼는 쪽에서 끊임없이 위작설을 제기했다. 주자도 "《춘추》를 읽을 때 단지 《좌전》 한 부만 볼 수는 없다. 반드시 수미의 의사가 관통되어야 비로소 성인의 필삭과 당시의 대의를 볼 수 있다"(동전, 도부록)는 식으로 《좌씨전》을 특별히 중시하는 언론이 있었지만, 그것은 예외적이다. 기본적으로 그는 "삼전"을 각각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좌씨는 일찍이 국사를 보았기에 사실 고증이 꽤 정밀하지만, 대의를 알지 못했다... 공곡은 사실 고증은 매우 소략하지만 의리는 정밀하다"(동전, 시거록). 즉 《좌씨전》은 《춘추》의 "사(事)"를 상술하고, 《공양전》 《곡량전》은 《춘추》의 "의(義)"를 밝히는 데 정밀하다는 것이다. "삼전"은 이로 인해 다른 학술 성질을 갖게 되었다: "좌씨는 사학이고, 공곡은 경학이다"(동전, 백록). "사"와 "의"로 "삼전"의 성질을 구분하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야마다 타쿠(山田啄) 〈춘추삼전의 비교 연구〉(《가나자와대학 법문학논집·철학사편》 9; 《가나자와대학 교양부논집·인문과학편》 5) 및 도미야 이타루(冨谷至) 〈서한 후반기의 정치와 춘추학〉(《동양사연구》 제36권 제4호) 등의 논문에서 실증되었다.

이로 볼 때, 그의 《좌전》에 대한 파악은 한편으로는 주자학의 맥락을 계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학자들의 연구에 의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토 진사이의 《춘추》 《좌전》 논술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단지 이것만을 기초로 한다면 이토 진사이 《춘추》학의 사상 취지를 절실하게 나타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쓰치다 겐지로의 논문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다. 그는 이토 진사이 저작 《춘추경전통해》의 뜻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중 진사이의 〈좌씨시말급삼전 득실론〉의 설을 언급하며 《좌전》에 대한 평가를 논한다. 이토 진사이는 《좌전》이 성인의 뜻을 이해하고 《춘추》의 우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좌전》이 일의 본말을 기재하여 사람들이 그 중의 선악의 진실을 분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춘추》는 성인의 사(史)이고, 《좌전》은 군자의 의를 제출하여 판단을 가한 것이다. 이는 마치 후세 사가의 평론이나 《통감찬요》 및 제유(諸儒)의 평의와 같아서, 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매 조의 경문 아래에 모두 경의와 깊이

관련된 《좌전》의 뜻을 부록으로 달아 그 취지를 보존했다. 한대 학술 변국으로 인해 《공양전》과 《곡량전》은 한 초에 이미 세상에 유행했다. 《좌전》은 평제(平帝) 때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학관의 학으로 세워졌다. 이에 학자들은 《좌전》이 가장 성인의 취지를 체현하고 경의를 천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일의 본말을 단순히 기록한 책으로만 보았다. 그는 또한 호안국이 말한 "사는 좌씨에서 취하고, 의는 공곡에서 취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좌전》 자체가 이미 경의를 다 궁구했다고 자부하며, 빠뜨린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정밀한 두예의 주도 경문에 주를 달 때 주로 《공양》《곡량》을 빌렸기 때문에 진정으로 《좌전》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토 진사이의 저작 취지에서 《좌전》이 《춘추》를 해석하는 중요성은 매우 명확하며, 이러한 논점은 의미가 있고, 후에 고문사학파인 야마이 곤론(山井崑崙), 핫토리 난가쿠(服部南郭), 우시 신(宇士新), 우시 로(宇士朗) 형제, 나아가 가메이 난메이(龜井南冥), 쇼요(昭陽) 부자가 더욱 정밀하게 논술한 《춘추》《좌전》학의 치경 의식과 방법 판단에 부합한다. 그러나 쓰치다 겐지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말할 나위도 없이, 춘추학의 역사상 삼전을 폐하고 《춘추》 경문으로 돌아가는 조류는 당대의 담조(談助), 조광(趙匡), 육순(陸淳)으로부터 송대의 손복(孫復)에 이르러 더욱 강렬해졌다. 주희가 추송하고 명대 《대전》이 채용한 호안국 《춘추전》도 그 중 하나이다. 그것은 《춘추》 해석의 원리를 간명화했으며, 개별 기사에 대해서는 금욕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도덕 평의를 전개했다. 진사이의 자세는 호안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의외로 여러 번 호안국을 인용했다. 원래 호안국의 입장도 진사이가 추송한 정이(程頤) 《역전》과 상통하는 강렬한 요소를 띠고 있다.

진사이는 호안국 등처럼 삼전을 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좌전》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했다. 이런 어느 정도의 퇴행 현상은 그가 《시경》 해석에서 〈시서〉를 재평가한 것과 유사하다. 〈시서〉의 재평가가 《시경》의 비경서화 과정을 동반했듯이, 《좌전》의 평가도 《춘추》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의 박리를 초래했다.

그는 진사이가 호안국 《춘추전》을 추송하는 뜻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진보이지만, 이토 진사이가 송명 시대 사람들처럼 《춘추》를 읽지 않고 오히려 《좌전》을 통해 공자 《춘추》의 뜻을 다시 탐구하려 한 것은 일종의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치경

취향을 "아마도 진사이학의 균열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의 해석을 따른다면, 에도 시기에 중국의 《춘추》《좌전》학 연구 성과를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급할 가치가 없게 된다. 두 학자는 이토 진사이의 경전 해독에 대해 각자 독특한 이해와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편향된 부분이 있어 완전하지 못하다.

위의 두 편의 문장을 기초로 하고, 나아가 이토 진사이 〈춘추경전통해논례〉를 참조하면 그의 학술 주장을 볼 수 있다. 본문은 그의 《춘추》《좌전》에 대한 파악을 보충하여 이토 진사이의 설을 더욱 주도면밀하게 논술하고, 고학파 《춘추》학 연구 발전에서의 가치와 공헌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이토 진사이 "공맹의 혈맥"론: 《춘추》는 《좌전》으로 해석한다

미야케 마사히코는 이토 진사이 저작을 통독하여 그의 사상 맥락과 경전 비판을 상당히 파악하고, 진사이 경전 주설을 해독하는 관찰 방법을 제시했다. 주로 경전의 "의사어맥(意思語脈)"으로부터 성인의 사고 양식과 문맥을 추적하며, 그 이해가 "의미혈맥(意味血脈)"과 자의를 규정하는 전제가 된다고 한다. "의미"란 경서 각 문장의 취지와 함축을 가리키고, "혈맥"은 도통, 즉 유교의 정통 사상이다. 의미와 혈맥의 상호 관계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혈맥에 대한 이해로부터 개별 의미의 규정으로 가는 하향 분석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의미의 이해로부터 혈맥의 파악으로 가는 상향 종합 방법이다. 그의 설은 부분과 전체의 교호 변증 해석, 검사와 확인으로 간략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조작의 첫 번째 특징은 "분류"이다. 개별 의미의 구분과 상호 관련을 확정함으로써 혈맥의 전체를 현명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특징은 "고증"이다. 즉 개별 의미에 대한 사실성 기초 건립을 통해 혈맥의 총체적 진실성을 확립한다. 이러한 방법과 과정을 진사이 《춘추경전통해》의 설해에 놓는 것이다.

미야케 마사히코의 관찰과 판단은 우리의 진사이에 대한 인식을 더욱 깊게 한다. 그는 진사이가 《대학》을 "사서"에서 배제하고, "《예기》 제편은 진인이 갠분한 나머지 나온 것으로, 한유가 부회한 손으로 이루어진 것"(<<대학비공씨유서지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 《예기》를 "오경"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한다. "공맹의 혈맥"을 추구한

진사이는 《논어》《맹자》를 기반으로 하여 《춘추》로 진입했다. 그는 진사이가 독 《좌씨전》이 《맹자》의 뜻과 서로 합치한다고 취한 주요 원인이 《좌씨전》의 사상 태도가 "공맹의 혈맥"과 일치하기 때문이며, 진사이는 심지어 좌씨를 춘추시대 인물로 추정하여 전국시대의 맹자보다 앞선다고 생각한다.

이토 진사이는 덴와(天和) 3년(1683) 전후에 자신의 《춘추》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여 《춘추경전통해》〈개수본〉의 고본으로 만들고, 문인 나카지마 후잔(中島浮山)에게 정서본을 베끼게 했다. 이 책의 서두에 〈춘추경전통해논례〉가 있으며, 내용은 (1) 〈부자작경본지론〉, (2) 〈춘추지요론〉, (3) 〈좌씨시말급삼전득실론〉, (4) 〈주례론〉이다. 정문은 모두 6권으로, 《춘추》의 경문 옆에 《좌씨전》의 발췌를 나란히 싣고, 두원개(杜元凱), 임당옹(林唐翁)의 주석과 이토 진사이의 해석을 더했다. 그러나 본서 체례는 아직 완비되지 않아, 권5 〈희공〉 이후 6대를 건너뛰어 〈애공〉으로 가는 등 중간에 결락이 있다.

이토 진사이는 《좌전》이 《맹자》와 합치한다고 생각하여 역시 《좌전》을 "혈맥"의 하나로 보았으며, 그의 〈논례〉 중에서 《맹자》가 《춘추》를 논한 문장을 정리하고 그 견해를 표시했다. 먼저 〈부자작경본지론〉에서 이토 진사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춘추》는 선악의 부책(簿帳)이다. 대개 당시는 세상이 질박하고 일이 간단하여 세상에 행해지는 기록이 없었고, 선악이 모두 시대와 함께 인멸되어 후세에 드러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난신적자가 그 탐심을 마음대로 부려 꺼리는 바가 없었다. 공자가 두려워하여 《춘추》를 지어 책에 크게 써서 백세에 지울 수 없는 전범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맹자가 말하기를: "세도가 쇠하고 도가 미약해지자 사설과 폭행이 일어났다.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가 있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시해하는 자가 있었다. 공자가 두려워하여 《춘추》를 지었다." 또 말하기를: "공자가 《춘추》를 이루자 난신적자가 두려워했다." 이것이 성인이 경을 지은 본래 취지이다. 학자가 이것으로 《춘추》의 의를 구하면 분명해진다.

그는 《춘추》가 곧 선악의 책이라고 생각했다. 선악의 인멸에 대해 난신적자의 악을 드러낼 수 없어 꺼리는 바가 없게 되었다. 이로 말하면, 그는 악을 현명하게 하는 것을 편중하고, 이러한 현명함을 통해 난신적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한다. 공자가 《춘추》를 지은 본지는 즉 난신적자의 악을 억제하는 데 있다. 맹자의 말에 따르면,

당대의 난이 이미 극에 달했고, 《춘추》는 25건의 시군 사건을 기재했으며, 그 중에 자식이 아버지를 시해한 자도 적지 않아 당대 역륜의 악을 볼 수 있다. 동시에 맹자도 공자가 《춘추》를 이룬 것이 효과가 있어 난신적자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서사를 통해 선악을 드러내고 정치의 악을 억제하는 것이 《춘추》의 기본 대의이다.

당대의 극대한 악은 시군의 난으로 드러나며, 나아가 이토 진사이는 혼란의 근원이 곧 《논어·계씨》에 기록된 공자의 말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악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온다.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제후로부터 나오면 대개 10대를 넘기지 못하고, 대부로부터 나오면 5대를 넘기지 못하며, 배신이 국명을 집행하면 3대를 넘기지 못한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정치가 대부에게 있지 않다. 천하에 도가 없으면 서인이 의론하지 않는다."

정치 실권의 이전에 따라 권력이 점차 중앙에서 제후로 흘러가고, 다시 제후에서 지방 대부로 이동한다. 일반적으로 제후의 집안은 10대 정도 세습할 수 있고, 대부의 집안은 대부분 5대를 넘지 못하며, 배신에 이르면 왕왕 3대를 지속하기 어렵다. 천하가 안정되고 질서가 정연할 때 실권은 지방에 집중되지 않으며, 서민도 정사 의론에 개입하지 않는다. 공자가 논한 것은 바로 《춘추》가 기재한 정치가 점차 타락하는 과정이다. 제도적 불균형에 직면하여 이토 진사이는 이것이 《맹자·고자》의 논과 같다고 생각한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오패는 삼왕의 죄인이다. 지금의 제후는 오패의 죄인이다. 지금의 대부는 지금 제후의 죄인이다. 천자가 제후에게 가는 것을 순수(巡狩)라 하고,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하는 것을 술직(述職)이라 한다. 봄에는 농사를 살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가을에는 수확을 살펴 부족한 것을 도와준다. 그 강역에 들어가서 토지가 개척되고 전야가 다스려지며 노인을 봉양하고 현인을 존중하며 준절이 자리에 있으면 경사가 있으니 땅으로 경하한다. 그 강역에 들어가서 토지가 황무하고 노인을 잃고 현인을 잃었으며 탐욕스러운 자가 자리에 있으면 양보가 있다. 한 번 조회하지 않으면 그 작위를 폄하하고, 두 번 조회하지 않으면 그 땅을 삭감하며, 세 번 조회하지 않으면 육사(六師)로 옮긴다. 그러므로 천자는 토벌하고 정벌하지 않으며, 제후는

정벌하고 토벌하지 않는다. 오패는 제후를 끌어모아 제후를 정벌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오패는 삼왕의 죄인이다."

그는 정치 권력이 점차 하향 이동함으로 인한 제도적 악화를 한 층 한 층 추연한다. 그는 "순수"와 "술직"의 제도로 천자와 제후 간에 본래 유지되어야 할 정당한 관계를 설명한다. 또한 천자가 순행하여 봄에는 농사를 살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가을에는 수확을 검사하여 부족한 것을 도와준다고 논한다. 만약 제후의 경내 토지가 개척되고 농전이 수치되며 노인을 봉양하고 현인을 존중하며 준걸을 임용하면 천자가 가상히 여겨 토지로 상을 준다. 반대로 만약 전답이 황폐하고 노현이 버려지며 탐학한 신하가 재위에 있으면 책양을 주고 심지어 점차 징벌한다: 한 번 조회하지 않으면 작위를 폄하하고, 두 번 조회하지 않으면 땅을 삭감하며, 세 번 조회하지 않으면 육사를 일으켜 정벌한다. 그러므로 천자는 토벌하고 정벌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토벌하고 그 과실을 책양하는 것이지 단지 천자 정치 권력의 전현이 아니다. 그러나 제후는 "벌이불토(伐而不討)"로, 단지 성패 공벌일 뿐 명분이 없고 제도상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으며, 더 많은 것은 정치 실력의 전시이다. 그러므로 오패는 삼왕의 죄인이며 제도가 빠르게 열화되는 주요 원인이다.

춘추시대에는 공벌이 끊이지 않았다. 《춘추》가 기재한 전쟁은 《좌전》 기재에 따르면 전서에 모두 492건의 전쟁이 있고, 《춘추》 경에 있으나 《좌전》에 없는 39건을 더하면 경전을 합쳐 크고 작은 전쟁이 531건이다. 이토 진사이는 확실히 《춘추》가 돌출시킨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전쟁 기록을 보았고, 《맹자·진심》의 평의에 매우 찬동했다: "《춘추》에는 의로운 전쟁이 없다. 저것이 이것보다 선한 것은 있을 뿐이다. 정(征)이란 위가 아래를 정벌하는 것이며, 적국은 서로 정벌하지 않는다." 《춘추》에는 정의라고 칭할 만한 전쟁이 없고, 단지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있을 뿐이다. 이른바 "정"이란 위가 아래를 정벌하는 것이며, 서로 대등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정"이라는 정의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춘추》에 의전이 없다. 이처럼 번다한 전쟁은 하나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토 진사이는 위에서 인용한 《논》 《맹》에 근거하여 제시한다:

이 세 설은 함께 한 뜻이며, 부자가 《춘추》를 지은 이유를 보여준다. 그런데 학자들은 뒤의 한 설만 《춘추》의 일을 논한 것으로 알고, 앞의 두 설은 《춘추》를 위해 발한

것임을 실제로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를 드러내어 밝힌다.

세 설이 한 뜻을 공유하지만, 일반적으로 《춘추》에 의전이 없다는 것만을 그 대체로 알 뿐, 그 원유를 알지 못한다. 즉 제도 불균형을 지적하고, 신하가 참월하며, 제후, 대부 및 배신이 정치 실권을 장악함으로 형성된 동탕과 전란이다.

그는 또한 맹자가 말한 "《춘추》는 천자의 일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말하기를: '나를 아는 자는 오직 춘추일 것이요! 나를 죄줄 자도 오직 춘추일 것이다!'"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른바 천자의 일은 바로 예약과 정벌을 가리킨다. 《논어》에서 말하기를: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약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온다." 이것이다. 대개 예약과 정벌은 천자의 일이지 서인이 마땅히 의논할 바가 아니다. 당시 세도가 쇠미하고 도가 미약해지자 사설과 폭행이 일어나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시해했다. 공자가 두려워하여 《춘추》를 지었으니, 이는 서인이 천자의 일을 의논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아, 죄아"라고 한 것은 부득이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만약 성인이 위에 있어 왕강이 수리되고 인륜이 밝았다면, 예약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왔을 것이니 《춘추》는 다시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서인이 의논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위의 도를 잃음을 깊이 책망한 것이다.

"천자의 일"은 구체적으로 "예약정벌"에 체현된다. 공자가 《춘추》를 찬술한 것은 바로 예약정벌의 기사와 평의를 통해 서인 신분을 초월한 "천자의 일을 의논"하는 행위를 전현한 것이다. 맹자가 말한 "나를 아는 자는 오직 《춘추》일 것이요, 나를 죄줄 자도 오직 《춘추》일 것이다"는 곧 공자가 저술 중에 비의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지하면서도 여전히 왕자의 규모로 정치 질서를 재건하여 부득이하게 한 것임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 《춘추》를 지은 것은 필삭포편을 통해 왕강을 수보하고 인륜을 명변하기 위함이다. 그 핵심은 서사로서 "예약정벌" - 즉 본래 천자가 전유해야 할 일 - 을 의논하여 이로써 정교 질서의 명분과 응유의 원칙을 창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서사와 의논의 창발에 대해 이토 진사이는 그 심각한 의의와 가치를 지적한다:

성인이 경을 수리함은 제작이 그치지 않고 그 몸이 죽은 후에야 그친다. 대개 창업 수통하여 후인으로 하여금 계승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좌씨》가 전을 저술한 것도

역시 그 몸이 죽은 후에야 그쳤으므로 애공 27년 추8월에 이르러 그쳤다. 대개 역시 사람이 자기의 책을 계승하기를 기다린 뜻이 있으니, 대개 천자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는 당세에 대한 교정에 대해 공자가 《춘추》를 지어 죽을 때까지 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창조의 목적은 수통에 있어 후인에게 창시하여 후인이 계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좌전》이 바로 《춘추》의 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작자도 죽을 때까지 기재하여 비로소 종지했으므로 애공 27년 추8월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역시 사람이 자기의 뜻을 계승하기를 기다린 뜻이 있으니, 《춘추》의 통을 이루고 천자의 뜻을 연장하기 위함이다. 진사이의 이 관점은 꽤 흥미로운데, 그는 《춘추》의 통을 수하는 입장에서 그가 《춘추》와 《좌전》을 해독하는 두 가지 판단을 언급한다. 하나는 공자가 애공 14년 획린 때 붓을 멈춘 것이 아니라 애공 16년에 그쳤다는 것이고, 《좌전》은 애공 27년 추8월, 즉 작자가 죽을 때 붓을 멈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과 입장은 그의 《춘추》 《좌전》 해독과 관련될 것이다.

《춘추》 제작 연원에 대해 이토 진사이는 《좌전》에 근거한 관찰이 또 하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춘추》는 본래 노사의 이름으로, 대개 노의 사관이 주례에 근거하여 책서의 말을 명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의 한선자가 《역상》과 《노춘추》를 보고 말하기를: "주례가 다 노나라에 있구나. 내가 이제야 주공의 덕과 주가 왕 노릇을 한 까닭을 알겠다." 그러나 사관이 비록 주례에 근거했지만, 그 쓴 바에 당함과 부당함이 있으니, 공자가 특히 의에 합치하는 것을 취하고 의에 합치하지 않는 것을 삭제했다. 그러므로 맹자가 말하기를: "그 일은 제환공과 진문공이고, 그 문은 사관이며, 공자가 말하기를: '그 의는 내가 사사로이 취했다.'" 이것이다. 이른바 취한다는 것은 내가 저것에서 취한다는 말이지 스스로 제작한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그 재단이 성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역시 작이라고 한다. 사실은 《시》를 산삭하고 《서》를 정한 것과 같은 예이지 부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고대 열국의 사서를 모두 "춘추"라 칭했는데, 오직 《노춘추》만 부자로 인해 드러나고 다른 "춘추"는 세상에 행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춘추》라는 책은 부자 이전에 이미 노국의 한 경전이었고 《역상》과 나란히 칭해졌

으므로 진의 한선자, 맹자가 모두 《노춘추》라 칭했다. 《예·방기》에서도 역시 "《노춘추》"라 하며, 진의 상을 기록하여 말하기를: "그 임금의 아들 해제와 그 임금 탁을 죽였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노춘추》는 부인의 성을 제거하여 오라 하고, 그 죽음을 '맹자가 죽었다'고 했다." 모두 《노춘추》라 칭하고 공씨에 계속하지 않은 것을 본다. 그러면 부자 이전에 스스로 노국의 한 경전이 되어 전하여 전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사관이 쓴 바가 당부가 없을 수 없으므로 부자가 나아가 수정한 것이다. 이에 《춘추》는 길이 천하 만세의 경이 되어 다시는 전일의 《춘추》가 아니게 되었다.

이상 논한 바를 귀약하면: 1. 《춘추》는 원래 노국 사관의 책으로, 노사관이 주례의 법칙을 받들어 찬사한 것이므로 진의 한선자가 《노춘추》를 관찰하여 "주례가 다 노나라에 있구나"라고 칭한 것은 즉 《노춘추》가 주공의 법과 주례 정신, 제도를 보존했음을 승인한 것이다. 2. 공자는 《춘추》를 스스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의에 합치하는 것을 취하고 의에 합치하지 않는 것을 삭제"한 것으로, 즉 맹자가 말한 대로: "그 일은 제환공과 진문공이고, 그 문은 사관이며, 공자가 말하기를: 그 의는 내가 사사로이 취했다." 공자가 이른바 "《춘추》를 지었다"는 것은 실제로 기유의 사사를 취법하여 다시 그 재단으로 수사를 가한 것으로, 성질이 그의 "《시》를 산삭"하고 "《서》를 정"한 것과 같다. 3. 《노춘추》는 본래 경전의 한 유형으로, 공자 이전에 《노춘추》는 이미 노국 전적으로 여겨져 《역상》과 나란히 열거되었고, 《예기·방기》의 관련 기재에도 나타나며, 《노춘추》라 칭하고 공자에게 부속시키지 않았으니, 그 경전 지위가 일찍이 확립되었음을 설명한다. 4. 공자의 공은 "만세의 경"으로 승격시킨 데 있으니, 원유의 혹은 이미 부분적으로 실재한 《노춘추》를 재정하여 그것이 보세적 의의를 갖추게 하고, 노국 한 사전에서 천하 만세가 공존하는 경전으로 승격시켜 마침내 공자 이전의 《춘추》와 다르게 했다.

이상 논한 바와 같이, 이토 진사이든 공자 《춘추》가 주의 제도 예법을 취법했으며, 가장 주요한 정신과 내함은 예약정벌의 실질로 천자의 도를 논하는 데 있고, 《춘추》는 연원상 본래 주례를 갖추었으며, 공자는 단지 그 정신 내함에 나아가 "사관이 쓴 바가 당부가 없을 수 없으므로" 공자는 그 의리를 수정하고 재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 견해는 공자 "술이부작"의 자술과 계합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신이호고"의 자평과도 부합하여 공자가 신전을 창제한 것이 아니라 고제를 의순하고 정용평을 취

하여 나아가 《춘추》를 한 나라의 사에서 만세의 경으로 상승시켰음을 표명한다. 《춘추》가 만세의 경으로서의 중요한 의의는 그 창업수통에 있으니, 공자가 의식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공자가 애공 16년까지 썼고, 이 통을 《좌전》에 전했으며, 《좌전》 작자도 역시 애공 28년까지 썼다. 진사이는 후세 사서가 모두 이 《춘추》의 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의 사마씨에 이르러 기전의 체를 창립하니 후의 사씨가 종주로 삼았다. 송의 사마 속수씨가 또 《춘추》를 본받아 《자치통감》을 저술하여 상하 1,300년을 관천했고, 주정씨가 속수씨를 본받아 《강목》을 지었는데, 강은 《춘추》를 법하고 목은 《좌씨》를 본받았으니, 모두 공자로부터 발한 것이다.

이후 거유가 배출되고 저작이 서로 이어져 시비가 비록 성인에게 괴이하지 않을 수 없지만, 선악숙닉이 천하에 폭저되어 섬예가 도망갈 곳이 없으니 이것이 성인의 뜻이다.

그런즉 《춘추》는 244년 사이만 시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만세를 시비하여 무궁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사마천 이하 역조 정사 및 《강목》 《통감》 등의 책을 모두 공자가 지은 것이라 해도 역시 가하다. 《춘추》의 의가 어찌 크고 넓지 않겠는가! 정자가 사로써 《춘추》를 보지 않은 것은 대개 이 뜻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위에 서술한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다. 첫째, 《춘추》 서사는 단지 노국 244년간의 일을 기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편적 규범 효력을 갖춘 시비선악에 대한 은닉할 수 없는 판단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으며, 이것이 공자의 "뜻"이다. 둘째, 이는 즉 《춘추》가 단지 역사 기사일 뿐 아니라 도덕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경전임을 현시하며, 그 효력은 개별 시대를 초월하여 만세에 미친다. 그러므로 사마천 《사기》 이하 역대 정사, 나아가 《강목》 《통감》 등의 사서를 모두 《춘추》 정신을 계승한 서사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비록 공자가 친필로 쓴 것이 아니더라도 역시 《춘추》가 만세를 시비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춘추》의 의리는 실로 광대 심원한 가치를 갖춘다. 그는 정이가 사관으로 《춘추》를 본 것을 비판하며, 단지 단순한 편년 기사로만 본 것은 이 중 사학을 초월한 심의를 통찰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3. 이토 진사이가 논한 《춘추》의 요점, 《좌씨》 시말 및 삼《전》 득실

먼저, 이토 진사이는 《춘추》의 주체가 즉 예라고 생각하니, 즉 《춘추》의 예에 관주

한다. "그러므로 《춘추》는 예를 권형으로 삼는다고 하니, 마치 《논어》가 인을 요로 삼고, 《시》가 사무사를 요로 삼는 것과 같다." 《좌전》 중에 많은 "예야", "비예야"의 기재와 판정이 있듯이, 한선자가 이른바 "주례가 다 노나라에 있구나"라고 한 것과 동시에 《노춘추》를 본 것을 알 수 있듯이, 주례의 체요는 "예"에 있지 한대 이래 유자들이 구한 포폄우탈이 아니다. 후세가 《춘추》를 이어 역시 예를 권형으로 삼을 수 있다면 즉 《춘추》의 요를 얻은 것이다. 다른 한편, 맹자가 말한 공자 "의는 내가 사사로이 취했다" 및 "《춘추》에는 의전이 없다"는 맹자가 "의"를 《춘추》의 요로 삼음을 현시한다. 비록 《좌전》이 말하는 "예"와 맹자가 강조하는 "의"가 표술상 차이가 있지만, 둘은 이에서 일치하니, 모두 《춘추》가 경전으로서의 도덕 규범 의함을 창현하는데 뜻이 있다.

맹자가 말한 "왕자의 자취가 그치고 《시》가 망했다. 《시》가 망하고 난 후에 《춘추》가 지어졌다"에 대해 이토 진사이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당시 왕법이 밝아 《시》가 흥했고, 왕적이 그쳐 《춘추》가 지어졌으니 어째서인가? 대개 선왕의 세상에는 사람이 순후하고 풍속이 두터워 미자선악이 모두 직도를 쓰고, 말하는 자는 허물이 없고 듣는 자는 원망하지 않으니, 후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시》가 흥했다. 《춘추》에 이르러서는 이 풍조가 마침내 쇠하여 미자선악이 천하에 은폐되었다. 이에 노의 사관이 특히 주공의 예경을 들어 그 선악의 자취를 기탁했으므로 "《춘추》가 지어졌다"고 한 것이니, 이른바 "작"이란 자작흥의 말로 "《춘추》를 이루었다"고 말한 것과 스스로 다르다. 그런데 제가가 《춘추》를 설하는 자들이 "《시》가 망하고 난 후 《춘추》가 지어졌다"는 뜻을 얻지 못했으므로 그 설이 지리분운하여 총불순하니 어째서인가? 지금 맹자 본문을 비추어 감히 비견을 서술하니, 이와 같은 군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의 "흥"과 《춘추》의 "작"은 각자 특정한 시대 배경을 갖추고 있다. 왕도가 창명할 때는 세속이 순후하고 풍화가 선량하여 인정이 단순하고, 미자선악이 모두 직도로 행해질 수 있었으므로 《시》가 흥기하여 시대 풍상이 되었다. 그러나 《춘추》의 세상에 이르러서는 왕도가 식미하고 풍속이 쇠박해져 시비선악이 점차 천하에 은폐되어 다시는 직언으로 현시할 수 없게 되자, 예법으로 포폄을 기탁하게 되었다. 노의 사관이 이에 주공의 예경을 들어 선악의 자취를 기탁했으므로 "《춘추》가 지어졌다"고 말한

다. "작"은 단지 편찬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창제의 의함을 갖추고 있어 "《춘추》를 이루었다"는 설과 구별된다. 진사이는 이로써 《시》와 《춘추》가 선악 포폄을 표현하는 방식에서의 차이와 계승을 강조한다: 전자는 직언 미자를 특징으로 하고, 후자는 예법으로 포폄을 기탁한다. 이로 보면 《춘추》의 "작"은 문체 표현의 전절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독특한 시대성 의함을 창현한다. 이 해석은 또한 진사이가 《춘추》 기능에 대한 정위를 현시하는데, 그것이 이미 단순한 사서를 초월했다고 생각한다.

이토 진사이는 또한 《춘추》의 사학 성질과 체제를 깊이 탐구하여, 고대 편년 체제가 《춘추》로부터 기시했음을 언급하며, 고대 사관이 대사를 기록할 때는 본말을 갖추어 기재하여 정편장을 이루었으며, 《상서》 전, 모, 서, 고의 체와 같이 주로 "대체를 존중하고 세사를 소략"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 표년으로 사를 기록한 것은 대개 은공 이전, 혜공 연간에 시작되었으므로 《춘추》는 본래 전문적으로 사를 기록했다. 잡록언사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전문적으로 언을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좌사기언의 말이 타당하지 않다. 또한 맹자가 말하기를 "왕자의 자취가 그치고 《시》가 망했다. 《시》가 망하고 난 후에 《춘추》가 지어졌다"고 했으니, 대개 《춘추》는 《시》와 서로 계승하고 《상서》와는 서로 융합하지 않는다. 어째서인가? 《춘추》 이전은 이미 가장 통하지 않고, 《춘추》는 본래 《시》가 망했기 때문에 지어졌으니 《상서》와 서로 융합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토 진사이는 《춘추》가 표년기사의 체제가 실제로 은공 이전, 혜공 연간에 시작되어 본래 기사를 주로 하고 전문적으로 언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후세가 상언하는 "좌사기언"의 제도에 찬동하지 않으며, 《춘추》의 성질이 기사에 있지 기언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맹자》가 말한 "《시》가 망하고 난 후 《춘추》가 지어졌다"에 의거하면, 《춘추》를 지은 것이 《시》를 계승한 것이지 《상서》와 서로 융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상서》와 서로 융합하지 않는 이유는 《상서》가 기재한 것이 대부분 상고 왕자의 정전으로 그 체제와 취지가 《춘추》와 판연히 달라 피차 계승을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춘추》는 바로 《시》가 망했기 때문에 흥기했으며, 그 계승 관계는 《시》의 직언 미자에 있지 《상서》의 정사 기록에 있지 않다. 이로 보면 《춘추》를 지은 것은 은공을 수위로 하는 편차 안배

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가 망한 후에 기사로 포편을 기탁하는 신전 체례이다.

이러한 층면의 개념이 있으면, 《춘추》는 공자의 신작으로 새로운 시대 속성이 있으므로 사로 볼 수 없고, 역시 《시》로 볼 수 없으며, 혹은 《상서》의 체제와 내함으로 볼 수 없다. 이토 진사이는 그가 《춘추》 중 성인의 뜻에 대한 취향과 판단으로 돌아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곡》의 경은 획린에서 그친다. 《좌씨》의 경은 애공 16년 "4월 기축 공구졸"에서 끝난다. 대개 부자가 위에서 노로 돌아와 《춘추》를 수정하여 몽전 이전에 이르러 비로소 그쳤다. 문인이 그 후에 계속 써서 "4월 신사축 공구졸"이라 했으니, 대개 《춘추》가 바로 공자가 수정한 것임을 본 것이다. 한유는 《공양》의 설에 미혹되어 마침내 "부자가 획린의 한 구에서 절필했다"고 했다. 무릇 유하 같은 무리도 오히려 한 말을 보탬 수 없었는데, 후래에 누가 감히 성인의 경을 함부로 이을 수 있겠는가! 가히 매우 황망하다고 할 수 있다.

이토 진사이는 《춘추》 단필 문제에 대해 한유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공양》《곡양》의 경은 모두 애공 14년 "획린"에서 그치므로 한유는 마침내 이에 근거하여 "부자가 획린에서 절필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좌전》이 기재한 바는 애공 16년 "4월 기축 공구졸"까지 연장되었으니, 진사이는 이에 근거하여 공자가 위에서 노로 돌아온 후 즉시 《춘추》를 수정하기 시작하여 그 수찬이 임종 몽전 이전까지 지속되어 비로소 그쳤다고 생각한다. "공구졸" 한 조는 사관이 경말에 더한 기사로, 경문이 완성되었음을 표시하고 《춘추》가 확실히 공자가 친히 수정한 것이지 후인이 맞춘 것이 아님을 표명하는 데 뜻이 있다. 진사이는 특히 만약 공자의 가장 가까운 제자 유, 하 등도 오히려 "한 말도 보탬 수 없었다"면 후래의 사람은 더더욱 망자 "속경"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한유가 《공양》의 영향을 받아 유행한 "획린단필"설은 실로 황망에 속한다. 이에 비해 《좌전》이 보존한 애15년, 16년부터 "공구졸"까지의 기재는 오히려 더 《춘추》 단필의 진모를 현시할 수 있고 공자가 친히 수정한 증거를 현시한다.

이토 진사이는 《공》《곡》이 본래 한 집안에서 나왔으며, 그 전하는 본이 모두 획린 이하를 탈락시켜 후에 아직 16년 경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획린절필설을 설명하기 위해 마침내 부자가 반물식하고 "오도궁의"라고 말한 것을 부회했다. 진사이가 보기에 공자는 이렇게 비정하지 않을 것이니, "무릇 성인은 낙천

지명하여 도의 폐흥을 모두 명이 있다고 했다. 어찌 다시 눈물이 옷깃을 적실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는 애16년 공구줄을 경문으로 정하여 공자의 책을 잇고, 그 후 천재 역사로 하여금 완정통달한 연속 맥락이 되게 하는 것이 해경의 정도라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진사이는 역시 두예가 소저사의 일을 인용하여 "획린설"을 주장한 것에 불만을 가졌으며, 이는 실제로 한유의 구설을 계승한 것으로 《춘추》의 진의를 천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진사이의 이 설은 확실히 고견이다. 단지 사학 전통의 속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공자 지업의 연신으로 창현하고, 후세 만세의 의리 판준과 관계된다. 특히 관건은 만약 《춘추》가 애공 15, 16 양년의 서사를 끊는다면, 《공양》설에 의거하여 그것이 소시하는 것은 바로 공자가 인간 세도에 대해 이미 다시는 낙관진취의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왕충이 말한 "공자는 주세 다력의 인이다. 《춘추》를 짓고 오경을 산삭하여 비서미문이 정해지지 않은 바가 없다"(*《논형·효력》*)는 논과 실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진사이의 설은 바로 공자 《춘추》에 대한 이해를 더욱 충실하고 완만한 경계로 추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토 진사이 <《좌씨》시말급삼《전》득실론>. 《좌전》에 대한 토론은 우선 작자 신분의 문제이다. 이토 진사이는 작자 신분이 공자 선배로 여겨지는 좌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요 이유는 만약 공자 선배인 좌구명이라면 공자 서거 후에 애공 27년 8월의 내용까지 계속 쓸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판단에 근거하여 그는 작자가 필연적으로 애말년의 사람이고, 그 죽음도 반드시 이 해에 있었으므로 이 해 8월까지 전했다고 주장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토 진사이가 경사에 대한 고도의 인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대개 《좌씨》가 경을 해석함에 중니가 경을 수정한 것이 오로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선악의 자취를 관찰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 책도 역시 전을 이끌어 애공 27년 추8월에 이르러 그쳤으니, 마치 공자가 경을 수정하여 공구줄 이전에 이르러 그친 것과 같다. 성인이 경을 수정한 것은 대개 난신적자의 욕을 금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선악의 자취를 관찰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좌씨》가 전을 저술한 것도 역시 그 일의 본말을 상비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선악의 실을 심핵하게 한다. 이것이 《좌씨》가 성인의 뜻을 알고 《춘추》의 우익이 된 이유이다.

《춘추》 저작의 본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을 관조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선악을 변석하는 것은 단절되고 영산한 기사를 빌어서는 이를 수 없고, 반드시 기사 수미가 구전하고 사리의 본말이 상명해야 한 후에 비로소 신중하게 고핵하여 선악의 실을 확립할 수 있다. 《좌전》은 이 취지를 계승하여 기사상 수미 상관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서사간 인과 맥락을 창현하여 이로써 선악의 판준이 완정하게 성립되게 한다.

다음으로, 《좌전》의 형식 구성에 대해 이토 진사이는 《춘추》가 단순한 편년 기사가 아니라 "성인의 사"이므로 서사의 핵심은 특히 성인의 의리와 가치 판단을 체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좌전》의 서사는 이 취지를 호응하는데, 그 중 가장 현저한 것이 바로 "군자왈"의 평어이다. "군자왈"은 단지 사사에 대한 보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판단의 기능을 담당하여, 후세 사가가 기사 후에 "논찬"을 더하는 것과 같고, 또 《통감》《찬요》 중에 부속된 제유의 평론과 같아 모두 독자가 사건의 의의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하다. 바로 이 때문에 이토 진사이는 "그러므로 그 경의에 절실한 것을 취하여 각조 아래에 부속시켜 역시 《좌씨》의 뜻을 존속시킨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군자왈"을 통해 후인은 직접 《좌전》이 어떻게 《춘추》의 취지를 이해하고 천발했는지 볼 수 있다. 그는 "《좌씨》의 전이 가장 성인의 뜻을 얻었고 경의에 대해 거의 발휘하여 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세 학자가 《춘추》 취지를 천발할 때 왕왕 《좌전》의 효용을 정시하지 못했다. 이토 진사이는 이러한 편실이 역사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좌씨》는 평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학관으로 세워졌고, 《공》《곡》 이전은 한초에 이미 세상에 성행했으므로, 사습이 서로 계승되어 마침내 대부분 《공》《곡》에 전주하고 《좌전》의 심의를 살피지 못했다. 더 중요한 것은 《좌전》의 주요 효용이 비사의 본말에만 있지 않다는 것인데, 그는 호안국의 "사는 《좌씨》에 안고, 의는 《공》《곡》을 채한다"는 관점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좌씨》가 전을 저술한 것은 그 뜻이 반드시 이것으로 다 경의를 다했다고 여긴 것이니, 어찌 스스로 전을 만들면서 스스로 그 의를 유루한 자가 있겠는가! 비록 진 두씨의 정밀함으로도 오히려 경전을 전선할 때 전적으로 《공》《곡》의 설을 빌어 해석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어찌 《좌씨》를 아는 자이겠는가!

《좌전》이 《춘추》의 전이 된 이유는 그 본의가 필연적으로 전면적으로 경의를 천석하는 데 있다. 그러나 즉사 진대 두예와 같은 정연한 학자도 경의를 해석할 때 여전히

파유 《공》 《곡》의 설을 의순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사실 그가 진정으로 《좌전》의 정신을 장악하지 못했음을 현시한다. 그는 더 나아가 《좌전》을 긍정한다:

《좌전》은 간명직절하여 스스로 맹자와 서로 합치한다. 《공》 《곡》 이전에 이르러서는 천착부란하여 심각함을 매우 초과하니, 이에 성인 광명정대의 취지로 하여금 도리어 두장옥사의 류가 되게 했다. 선유가 이른바 후인을 미혹하게 하려는 것은 과론이 아니다. 그러므로 《춘추》를 읽는 것은 특히 《좌씨》에 근거하여 단정하면 가하다.

《좌전》 필법은 간명직절하여 의리가 대부분 《맹자》와 상계한다. 이에 비해 진사이는 우위 엄려하게 《공》 《곡》 이전이 왕왕 천착부회에 흐르고 심지어 번쇄부패하게 현득하여, 성인 광명정대의 종지가 궤변이나 옥사와 유사하게 곡해되었다고 지적한다. 선유가 그것이 후인을 미혹하게 한다고 칭한 것은 확실히 과하지 않다. 이에 그는 극히 중요한 주장을 제출했고, 심지어 에도 시기 일본 《춘추》학의 중요한 정론에 영향을 미쳤는데, 만약 《춘추》의 진정한 정신을 읽고자 한다면 《좌전》에 빙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고한 의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토 진사이의 이 대결단은 《춘추》를 전해함에 있어 두예가 단지 이전을 거척하는 것을 주요 입장으로 하는 소극적 태도에 비해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전 경설을 부정하고 전적으로 《좌전》에 거하여 경을 해석하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 설은 진사이가 경학 전석상의 독특한 취경을 돌출시킬 뿐만 아니라 고학과 후속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오규 소래는 여전히 한유 경설의 사유 틀을 보류했으며, 그의 《춘추》에 대한 장악은 진사이의 정확함과 철저함에 미치지 못한다.

4. 이토 진사이 〈주례론〉 중의 치학 의식

《춘추경전통해》의 주해 체례에 대해 진사이는 여섯 가지 설명이 있다:

《춘추》를 아는 자는 맹자만한 자가 없고, 《좌씨》의 설이 실로 맹자와 서로 표리가 된다. 《공》 《곡》의 설에 이르러서는 맹자가 말하지 않은 것이니, 그것이 성인의 취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전적으로 《좌씨》에 거하여 설을 삼고, 그 경의에 절실한 것을 취하여 각각 경문 아래에 부속시켜 합하여 해석을 삼아 "경전통해"라 이름했다. 만약 일의 본말을 상세히 보고자 한다면 《좌씨》 전문을 사찰하면

가하다.

앞서 서술한 것에 근거하여 이토 진사이는 《춘추경전통해》 중에 그 기본 전석 입장을 확립했다: 《맹자》의 의에 의거하여 《좌전》을 전거로 《춘추》를 해석하고, "경의에 절실한 자"를 초점으로 하여 경전 합일의 해독 방식을 구한다. 이로써 진사이가 《춘추》를 해석하는 근거는 적어도 세 층을 포함한다: 하나는 《맹자》가 제시한 의리를 취법하는 것이고, 둘은 《좌전》의 해경에 의빙하는 것이며, 셋은 더욱 《좌전》이 기재한 기사 본말을 검취하여 경지를 천명하는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셋이 진사이가 《춘추》를 전석하는 핵심 의거를 구성한다.

고대에는 경전이 각각 행해졌고, 두씨에 이르러 비로소 경의 연과 전의 연을 나누어서로 부속시켰다. 그런데 세상에 행해지는 《춘추》는 모두 《공》《곡》이 전한 본으로 탈오가 매우 많다. 두씨가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부속 겸했으므로 경문이 탈오되어 《좌씨》 전중에 존재하는 것이 있으니, "동, 경사래고기" 및 "정백여주"의 류가 이것이다. 만약 "경사래고기" 및 "정백여주" 사는 《춘추》가 쓰지 않을 수 없는데 경은 모두 탈락했다. 지금 《좌씨》 문세를 상세히 보면 그 경문이 창창연히 명백하다. 그러므로 지금 전문을 고찰하여 그 서차에 따라 경에 복원시켜 무릇 약간 조를 제목하여 "보경 병부전문어기하"라 했다.

이토 진사이는 조기 《춘추》 경과 전이 각자 유전되었고, 두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문의 기년과 전문의 기년을 대응 부합시키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후에 유행한 《춘추》는 대부분 《공양》《곡량》 양전의 저본에 의거했고, 경문에 왕왕 탈오가 나타났다. 그는 두예가 세밀하게 고찰하지 못하고 직접 합병 사용한 결과 일부 본래 경문에 존재해야 할 기사가 도리어 《좌전》 중에만 보존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은6년 《좌전》이 기록한 "동, 경사래고기"와 "정백여주" 두 사가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데, 도리상으로 말하면 《춘추》가 기록하지 않을 수 없지만 현행 경문은 모두 결루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좌전》의 문세를 자세히 추고하면 이것들이 본래 《춘추》의 경문임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후래 학자가 《좌전》을 검시할 때 기사의 전후 맥락에 의거하여 이 문자들을 《춘추》 경문 중에 보완시키고 특별히 "보경, 병부전문어기하"라고 표제하여 보정의 뜻을 표시한다.

그러나 진사이가 한 "보경" 판단은 부분 금본 《춘추》 문본의 가고성을 삭약할 수

있다. 그가 "보경"하려는 이유는 《좌전》이 "경사래고기"에 대한 진일보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좌전》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은공이 노국 기황으로 인해 특별히 송, 위, 제, 정 제국에 수적을 청구했는데, 이 거조는 예제상 정당에 속한다. 전문은 "고기"가 주왕의 정식 조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경사"로 칭하고 직접 《춘추》 경문에 쓰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비록 왕명이 결여되었지만 은공은 여전히 "칭명"의 방식으로 행사하여 국내 양식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인국에 구원했다. 전은 마침내 이 거조를 예법에 합치한다고 평가하고 이로써 은공의 현덕을 창현했다. 진사이는 오히려 문세로 보아 응당 이 조를 경에 보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거조는 역시 현행 《춘추》 경문 본신의 완성성에 대해 질의를 제출했음을 의미한다. 진사이 보경 설법의 영향은 아마 가메이 난메이 《춘추좌전고의》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이 조에 "궐의"라고 표주했고, 그의 아들 가메이 쇼요는 《좌전찬고》 중에서도 상사 전해가 있다. 그는 "대개 경사의 공이 쓰지 않으면 경사고기가 책서에 미치지 못하는가? 혹은 중니 때 책에 궐문이 있는가? 장진화가 그것을 멸했는가? 요컨대 궐의에 귀결되어 질언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쇼요도 경문에 궐루가 있을 수 있음을 똑같이 승인함을 볼 수 있으니, 이 점은 진사이의 전해와 일치한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가메이 부자가 경전을 처리할 때 엄격한 원칙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무릇 의심이 있으면 궐하고 망령되어 보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궐의" 태도는 금본 《춘추》 경문의 엄밀성을 필연적으로 삭약하지 않고, 도리어 다문이신단의 기초상에서 강조하여 문본의 가고성을 더욱 증강시킨다.

《좌씨》 발범으로 예를 말한 것이 50조이다. 본래 예경이라 했으니, 대개 사관의 구법이라 하므로 상비 기재한다. 혹은 주공의 전례라 했으니 아니다. 어떻게 아는가? 《전》에서 말하기를 무릇 3일 이상을 립이라 하고, 1척 이상을 대서라 하는 류는 어찌 예의와 관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것이 사관의 구법임을 안다.

《좌전》이 기록한 "범" 예로 말하면, 총계 약 50조이다. 이토 진사이는 특별히 이 중에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다고 지적한다. 두예는 이 "범례"가 예경에 본한 것으로 사관의 구법이며, 심지어 주공 구전으로 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사이는 이 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예를 들어 《좌전》이 기재한 "무릇 비가 3일 이왕부터 립이 된다"와 같은 이류 규정은 단지 기사 필법에 속하고 사관 서사 문사상의 관례로

예의와 무섭하다. 그러므로 이 "범례"는 고가 사관 구법으로 볼 수 있지만 예경 제도로 오인할 수 없고, 더더욱 주공 구전으로 상소할 수 없다. 이러한 분별은 의의가 있는데, 문사의 조사 서사에 대해 계승의 고유 혹은 관용 성법을 갖추고 있고, 주대 예의 제도와 고도로 상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지 훈고의 사일 뿐이니, 그럼 예의나 예경 의의가 없고, 주공 구전의 의의도 없으니 이는 성립할 수 있다. 범례 중 어떤 부분이 사관 구법이고 훈고의 사에 속하며, 어떤 것이 예의 사상을 갖춘 주례나 공자 신의인지 어떻게 진일보로 분별하고 식별해야 하는지는 응당 더 나아가 진사이 《춘추경전통해》의 훈석을 탐사해야 한다.

《좌씨》가 기재한 "고서" "서왈"의 류는 모두 사관의 뜻에서 나온 것이지 문가의 구법이 아니다. 부자도 역시 따라 필지했으므로 지금도 역시 상비 기재하여 그 《춘추》의 뜻을 발명하고자 한다. 그 "불서"라 칭한 것은 대개 《좌씨》가 단지 그것을 들어 경문이 쓴 바가 모두 의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본래 경문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 제목하여 "부전"이라 하고, 오직 그 경의에 절실히 관계된 것만 녹하고 기타는 다 녹하지 않는다.

《좌전》 중에 상견되는 《춘추》 경문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고서" "서왈" 등 사어로 천석을 가한다. 이토 진사이는 이들 "동법"의 용어가 모두 사관의 의지를 반영했고 단순한 문사 습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해 그는 특별히 두 가지 요점을 지적한다: 하나는 이류 사관의 뜻이 일반 문자 서사의 관용 방식과 다르므로 진사이가 "비문가지구법"이라 칭한 것이고, 둘은 공자가 바로 사관의 필삭을 빌어 나아가 《춘추》 경문의 의를 천발한 것이다. 다른 한편, 《좌전》도 상견 "불서"의 설명이다. 이는 무릇 경문에 서재가 있으면 모두 스스로 그 의를 갖추고, 만약 《좌전》이 "불서"라 말하면 즉 원본 경문 중에 해사의 기록이 없음을 의미한다. 진사이는 《춘추경전통해》 중에 이에 대해 구분을 가하고 경의와 상관된 내용을 "부전"으로 귀류했다. 즉 그는 《좌전》의 석의가 경의와 관습하는 층면에서 응당 보조 경문 이해의 의거로 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공 14년 《전》에서 말하기를 "교여이부인부강씨지자제, 사족, 존부인야, 고군자왈: '《춘추》지칭미이현, 지이회, 완이성장, 진이불오, 징악이권선'." 이것이 《공》《곡》이전이 무위천착하여 후인의 의를 계발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지금 오직 《좌씨》가

말한 바를 따라 석한다. 기타 강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모두 꺾하니, 그것을 추하여 알 수 없고 또한 《춘추》의 대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 14년 《좌전》이 기재한 "군자"가 《춘추》에 대한 평술에 관해 이토 진사이는 이 단락 문자가 확실히 후세 논자가 《춘추》 "미언대의" 전석을 개전하는 중요한 근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사이는 이로부터 추연하고 광범하게 의리의 설을 발전시키는 것에 찬동하지 않는다. 그의 태도는 시종 근신한데,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 하나는 다문꺾의이고, 둘은 무릇 경의의 석은 반드시 《좌전》에 명문 주석이 있는 것을 의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좌전》이 미치지 못한 것은 개불취론한다. 진사이의 이 입장은 실제로 《춘추》를 전석하는 의거를 엄격히 제한했다. 그는 해경의 근본을 《좌전》이 주석한 것에 췌정하고 무소빙자의 의리 발휘를 용허하지 않는다. 거가 있으면 취하고 거가 없으면 꺾하는 태도는 아마도 후래 귀문 《춘추》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귀문학은 반드시 경전 본문과 《좌전》 전주에 근거하여 《춘추》를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로부터 맹자 이하 역대가 건립한 의리 전석을 배척한다. 진사이의 취경은 인이 귀문 《춘추》학이 원전주의를 강조하고 후설을 거척하는 중요한 치학 이념이 되었다.

경문이 있고 전문이 없는 것은 대개 부자가 사가의 구례에 의하여 쓴 것으로 본래 《춘추》의 대의가 아니므로 《좌씨》도 역시 전하지 않는다. 만약 "춘왕정월급", "일식", "지진" 등의 류는 두씨가 이른바 무전자가 이것이다. 후유가 살피지 못하고 강치분분 하니 가히 성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한유 재이의 설이 모두 이를 주로 한 까닭이다. 그것이 도리어 《춘추》의 대의를 어지럽힐까 두려워 지금 모두 논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토 진사이는 역래 쟁론이 된 "《춘추》《좌전》 유경무전" 현상에 대해 해석을 제출한다. 그는 이들이 단지 《춘추》 경문에 기록되고 《좌전》 전문에 보이지 않는 기사가 공자가 노국 구사를 연록한 것으로 《춘추》 대의가 있는 곳이 아니므로 다시 천석을 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춘왕정월급" "일식" "지진" 등 기사는 비록 경에 그 문이 있지만 전이 자설명할 수 없어 마침내 후유의 다방 분기의 설을 일으켜 도리어 《춘추》가 본래 창현하고자 한 의리를 요란하게 했다. 진사이는 더 나아가 한유가 발전시킨 재이설이 즉 이류 "유경무전"의 기사로부터 도출된 것이

라고 지적한다. 이중 전석 방식은 《춘추》가 사관 서법을 계승한 기록성에 과도하게 착안하여 단순한 역사 사건을 의리 상징으로 부회했는데, 실제로 그 중에는 《춘추》 대의와 관섭하지 않는다.

5. 결론

본문은 이토 진사이 〈춘추경전통해논례〉를 중심으로 그 《춘추》학의 특색과 가치를 탐토했다. 진사이의 전석 입장은 세 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맹자》의 의에 의거하고, 전적으로 《좌전》으로 《춘추》를 해석하며, "경의에 절실한 자"를 준으로 한다. 이에 거하여 엄격한 전석 변계를 건립했다 - 거가 있으면 취하고 거가 없으면 꺾한다. 이 입장은 한유가 변연 의리의 부회를 피할 뿐만 아니라 단지 《좌전》을 사사 기사로만 보고 그 판의 기능을 홀시하는 것을 방지한다. 진사이는 《좌전》을 《맹자》와 서로 표리로 삼아 공맹 사상 혈맥의 연속으로 보고, 이로써 《춘추》의 대의를 정위했다.

문본 조작 측면에서 진사이의 "보경"과 "꺾의"에 대한 처리는 일종의 신중한 평형을 표현한다: 한편으로는 문세와 체례로 가능한 꺾오를 리정하여 보복을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종좌실자에 대해서는 "유의즉꺾"을 주장한다. 가메이 난메이와 쇼요 부자는 이 경로를 계승하여 더욱 엄격해져 원전주의가 심화되게 하고, 보수 교독 원칙으로 "보경"이 가능하게 일발한 과도 중구를 교정했다. 다음으로 그는 《좌전》 50범례를 사관 성법으로 환원하고 예경 구전이 아니라고 하여, 이로부터 문사 성례와 제도 예의를 구분했다. "고서" "서왈" "불서" 등 어의 기능에 대한 소리는 《좌전》이 어떻게 평어로 판의를 승재하고 《춘추》가 "성인의 사"가 되는 중요한 보철이 되는지를 돌출시킨다. 재차, 진사이의 "유경무전"에 대한 정위는 재이 의리화의 과도 천석을 절제하는 데 뜻이 있어 그것을 순기사로 보고 《춘추》 대의 밖에서 배제하여 이로써 경전의 도덕 규범 핵심을 유호한다. 그러나 역시 주의해야 할 것은 《춘추》의 재이에 관한 기사가 반드시 단순 기록만은 아니고, 그 배후에는 여전히 주기사자의 정치 성찰과 거조가 대응하고 있어 반드시 완전히 《춘추》 의리 밖에서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체 공자학의 맥락으로부터 보면, 진사이는 "예의"를 《춘추》를 권형하는 주축으로 삼아 이 책이 단지 편년의 사에 그치지 않고 예악정벌의 명분 체계를 빌어 제후, 대부

나아가 배신의 참월을 교정하고 필삭포편을 통해 창업수통한다고 지적한다. 그의 "애 16년에 단필"과 "《좌전》이 애27년에 그친다"는 판정은 자족의 편년 종점설을 형성하여 그가 《춘추-좌전》을 일리관지의 문명 역사 공정으로 보는 안광을 전현하고, 역시 후세 《통감》《강목》의 의리 사학에 원두 전석을 제공했다.

종합하면, 본문이 논한 진사이의 학은 기유 연구가 그의 "《좌전》으로 돌아가기"가 "퇴행"인지에 대한 의려를 토론하기를 희망한다. 실제로 진사이는 복고가 아니라 원전주의로 송명 의리화에 대해 재교준을 진행한 것이다: 그는 《좌전》을 《맹자》어맥하에 놓고 중신 수권하여 경의의 가전승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문 본신의 가검증성을 확보했다. 진사이의 학술 방법은 에도 고학에 일투 가조작, 가검증이고 과도 의리화를 약속할 수 있는 《춘추》전석 범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좌전》의 지위를 중고했고, 역시 경학 방법론에 가지속 개전의 중요한 지표를 남겼다.